

데이터로
보는
입시 10

수학 약한 여학생, 경쟁력 높이는 길은?

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sy@naeil.com

표 2_ 통합형 수능 전후로 비교한 수학 1등급 남녀 비율

	통합형 수능 전			통합형 수능 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합계		
남학생	76.0%	53.6%	61.1%	75.3%	74.0%
여학생	24.0%	46.4%	38.9%	24.7%	26.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수학 1등급 여학생 급감

2023학년도 수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 비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에서 남학생의 1등급 비율은 74% 여학생은 26%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통합형 수능 이전인 2021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 비율이 남학생 61.1%, 여학생 38.9%였다. 통합형 수능 이후 남학생들이 수학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표 2). 전체적인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점수 평균으로도 남학생 102.7점, 여학생 97.1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다. 국어는 1등급을 받은 인원이 남학생 54.7%, 여학생 45.3%로

요즘은 공대에서 여학생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장학·취업 혜택이 좋은 이공계를 전공하려는 여학생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2022학년도에 통합형 수능이 시행되고 수학을 앞세운 자연 계열이 대입에서 유리한 것이 확인된 이후 자연 계열 지망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능 성적의 상위권 성비를 보면 여학생이 수학에서 매우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은 남학생 75.3%, 여학생 24.7%로 여학생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또 2등급 비율도 남학생 67.4%, 여학생 32.6%로 여학생은 3분의 1이었다. 이 같은 분포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통합형 수능 이전에 자연 계열이 응시했던 수학 가

형의 성비 분포와 유사했다.

수학은 상위권 대학 진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과다. 근본적으로 여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학습량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에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없어졌다고 하니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수학적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학력평가에서 모집단 특성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등급보다 높은 원점수를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수능에서 수학 성적이 높지 않다면 정시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모집 단위를 택하거나 여대를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하다. @

표_ 2022~2023학년도 수능 1~2등급 남녀 비율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국어		수학		국어		수학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남	56.9%	53.2%	75.3%	67.4%	54.7%	50.4%	74.0%	64.6%
여	43.1%	46.8%	24.7%	32.6%	45.3%	49.6%	26.0%	35.4%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통합형 수능에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구분이 없어진 수학은 1~2등급의 남녀 비율 차이가 벌어졌다. 국어 1~2등급은 남학생이 10%가량 많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내일교육) 기사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표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데이터로 보는 입시'는 지난 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편집부에 알려주세요. 한결금 더 들어간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집자